

명절 전후 교통사고 1.36배 증가

행안부, 음주운전 금지 및 화기 취급주의 당부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추석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만8335건이며 이로 인해 3만107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연휴 전날의 교통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827건으로 연간 일 평균 608건보다 1.36배 많았다.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시간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안전벨트 착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뒷좌석의 착용률(62.9%)이 운전석(97.3%)과 조수석(97.3%) 보다 낮게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11.4%로 평소(9.6%)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20대와 50대에서의 음주운전 비율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9월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가 중인 윤창호 상병이 만취 운전자에 차에 치여 사망한 사례를 비롯해 명절 전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

행안부는 명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줄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차에 타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어린 자녀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어른용 안전벨트를 착용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오히려 심각한 부상을 초래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깨 후에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추석에는 명절음식 준비 등으로 회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491건으로 추석 전날(35건)과 추석(36건) 당일에 평소(31건)보다 많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나 가연물 근접방지 등으

로 인한 부주의가 282건(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95건(19%)이었다.

행안부는 화재 발생을 막기 위

해 음식을 조리할 때는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불을 켜 놓은 채

지리를 벼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가스(전기)레인지

등을 사용 할 때는 근처에 불이 옮

겨 불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비치

하지 않고 환기에 주의하도록 한

다"며 교통사고와 화재 예방으로

평안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

檢 찾아간 CJ장남, 영장 실질심사 포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 선호 제일제당 부장은 최근 변종 대마를 밀반입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CJ 그룹은 5일 "이선호 부장이 당시 임직원에게 누를 끼치며 실망감을 드린 점에 사죄드린다고 전해왔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 부장은 지난 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소변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으나 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재벌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

을 받았다.

그는 결국 지난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스스로 찾아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가족과도 상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도 뒤늦게 알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인천지검에서 이 부장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변호인에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슈 패널

法 “국정원, 명진스님 불법 사찰 정보 공개하라”

“국가안보 정보 공개는 ‘비공개’ 사유로 기각”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려며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소했다. 서둘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은 6일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자판부는 “명진스님이 제기한 민간사찰에 관한 13개 문건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 정보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3848시간에 육박해 한국 1인당 연간노동시간(1967시간) 보다 1800여 시간이 많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에 달한다.

이들은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분류작업 개선에 나서야 하고,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무분류 혼합택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한 국회는 지난달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 목적의 수집정보에 해당한다고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에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는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둘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5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에서 서대문구 미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사를 잘 지켜달라는 농부의 염원을 담아 헌수아비를 만든 후 세우고

“택배노동자에게 명절은 지옥”…분류작업만 7시간

“오전 7시 출근 오후 2시 배송 시작…분류작업 개선해야”

“택배노동자들에게 명절은 장시간 노동의 ‘지옥문’과 같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남겨놓은 5일 택배노동자들이 명절 연휴 하염없이 길어지는 대기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이룸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택배없는 날’을 통해 꿀맛같은 휴식을 보낸 기쁨도 잠시, 추석을 기점으로 하염없이 길어지는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때는 배송물량이 급증하면서 분류작업 시간도 길어지고,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이 오전 7시에 출근한 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배송을 시작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당일 일주일 전후로 한 시점의 택배분류작업시간은 평균 7시간 내외였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분류작업 종료시간을 살펴보면 △노원 6시간5분 △용산 6시간 △강서 5시간40분 △성남 6시간15분 △용인수지 6시간20분 △수원영통 7시간5분 △안산 6시간58분 △홍성예산 6시간40분 △대구중 5시간30분 △대구달서 5시간34분 △부산연제 6시간46분 △부산우암 6시간30분이었다.

노조 측은 “추석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택배노동자들은 사실상 명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 설명했다.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의 경우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무분류 혼합택배’ 문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역시 분류시간이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3848시간에 육박해 한국 1인당 연간노동시간(1967시간) 보다 1800여 시간이 많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에 달한다.

이들은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분류작업 개선에 나서야 하고,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무분류 혼합택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한 국회는 지난달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미숙이는요…
자폐치료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 그래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령에는 김진기 군부이 초월화이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 품번 129 |

| 고객센터 1577-1000 |